

김부겸 불출마...민주 경선 文-安-李 3파전

〈재인〉 〈희정〉 〈재명〉

文, 중원 찾아 대세론 확산
安, 이세돌 영입 이슈 몰이
李, 대통령 탄핵 촉구 회전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구도가 3파전으로 압축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재명 성남 시장이 각축전을 벌이게 됐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존하는 나라,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저의 도전은 끝내 국민의 기대를 모으지 못했다”며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절감했다”면서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개헌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내겠다며 “결국 1000만명이 걸거리 나와 이끈 정치변화가 제도적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3각 경쟁 구도는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전 대표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안방인 충청 지역을 찾아 중원 선점을 통한 ‘대세론’ 확산에 나섰다. 대선 초기 판세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안 지사의 ‘돌풍’을 차단하기 위해 그의 뒷발을 찾은 셈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청이 대선의 승부를 좌우해 왔다”며 “충청지역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더 많이 사랑받아서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고 싶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차기 정부 초기에 개헌 추진으로 재정을 포함한 지역 분권을 공약한 만큼 충청이 지역균형발전의 근거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권교체 밀알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부겸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의 밀알 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정책 토론회에 참석, ‘절대약자 우선 복지’ 구상을 밝혔다.

안 지사는 축사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성실한 맘과 노력이 소득 분배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대신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이웃들에 대해서는 튼튼한 안전망과 복지체계를 어떻게 만들지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야권의 ‘보편적 복지’ 노선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발언으로, 정책적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공로롭게도 이날 야권 지지를 선두를 달

리는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의 ‘안방’인 충청권을 방한한 상황에서, 안 지사는 거꾸로 19대 국회에서 문 전 대표의 주 무대였던 여의도를 찾아 정책행보를 이어간 셈이다.

특히, 안 지사는 최근 ‘알파고’와의 대결로 관심이 쏠렸던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하는 등 이슈 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서 “현재는 국민을 믿고 2월 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이 긴급회견을 자처한 것은 당내에서 중도층 공략 행보를 보이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상층세를 타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면서 촛불민심을 대변해 선명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

이 시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촛불 광장의 거대한 물결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국민이 조금 더 힘을 내야 할 때”라며 “현재는 국민을 믿고 탄핵을 결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탄핵이 완성되기도 전에 정치권이 방심하고 광장을 떠나버린 것 아닌지 걱정된다”며 “반동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광장으로 돌아와 국민과 함께 싸워달라”고 촉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朴대통령에 탈당 권유

난국 돌파 해법 카드...청와대는 부정적

새누리당이 멀어져간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자진 탈당 카드를 꺼내들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래 친박(친박근혜)계 서정원 최경환 의원 등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렸지만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당적 정리가 인적 청산의 핵심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7일 여론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박 대통령의 자진탈당 문제에 대한 당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논의 결과, 대통령이 자진탈당을 결심해주지 않으면 당 윤리위가 인위적으로 대통령을 탈당시키거나 제명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당에서 그렇게 원칙을 정했다는 것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탈당을 권유하거나 강제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박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차원에서 자진탈당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전제에서 이런 뜻을 애둘러 전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여기에는 자진탈당이 새누리당이 직면한 이종고를 자연스럽게 해소해줄 수 있다는 기대도 반영됐다는 시각이다.

이런 전략이 실현된다면 새누리당은 우선, 박 대통령의 탈당을 통해 민심을 반을 해결할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또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을 징계하는 방법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당적을 정리하는 모양새를 만들면 박 대통령 지지층 까지도 겨냥을 수도 있게 된다는 점점 이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새누리당의 탈당 요구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 속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적 문제에 대해 신경 쓸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에는 탈당에 대한 박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돈 받고 집회 나가면 처벌’ 집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금품을 주고 집회를 사주하거나 돈을 받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 모두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돈을 주고 집회를 사주한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돈을 받고 참여한 자는 받은 금액의 10~20배에 달

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우익 단체들에 최근 3년간 61차례 25억원을 지원했다는 보도가 있고, 청와대가 자금지원을 요구했다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진술도 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돈을 제공해 집회를 여는 행위는 광장여론을 돈으로 사는 심각한 정치 관여 행위”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선거 당일에도 문자·인터넷 홍보 가능

앞으로는 선거일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은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8회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선거 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가 정보보호문이나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를 결정해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대한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지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공포안은 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안이나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 그리고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에서는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다음은 김종인? ...‘3지대론’ 마지막 변수 주목

孫 “김 전대표가 먼저 가서 잘 하라고 하시더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7일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 대표가 사실상 제3지대론의 ‘마지막 변수’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제3지대론이 국민의당과 손 전 대표의 결합으로 ‘스몰 텐트’로 정리되는 모양새지만, 김 전 대표의 탈당 여부와 이후 행선지에 따라 제3지대가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김 전 대표가 탈당할지 잔류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날 손 전 대표의 통합선언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이제 김 전 대표가 탈당할 가능성이 적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국민의당 외에 제3지대의 공간이 사실상 없어지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최근 당내에서 우상호 원내대표 등을 중심으로 ‘안희정 띄우기’가 이어지면서, 일부에서는 김 전 대표가 당에 남아 안희정 충남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김 전 대표가 결국 탈당을 결행할 것이라는 반대의 예상도 만만치 않다.

최근 김 전 대표를 만난 한 중진 인사는 “김 전 대표에게 당이 40%대를 유지하며 잘 해나가고 있으니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는 냉소적 답변이 돌아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전 대표가 국민의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 전 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표에게) 통합선언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먼저 가서 잘하라고 하시더라”라고 했다.

다만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라디오에서는 “김 전 대표가 ‘먼저 가서’라는 얘기는 꼭 없었을 수도 있다. 하여튼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않더라도 김 전 대표가 탈당 후 독자세력을 만들고서 지지를 끌어모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대표는 이후 행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내가 그 당 같 사람도 아니다”, “내가 거기(국민의당) 갈 사람으로 보이는지 상상해보라” 라면서 국민의당에 합류할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거취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답하지 않았다. 당 안팎에서는 김 전 대표가 15~17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안보 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이후에 결심을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담양 대덕

특산품

호두농장

무公害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담양 대덕의 특산물로서 부모님 **효도선물**, 명절선물로 최고입니다!!

어린이들 머리에도 좋은 호두 하루 3~4알로 건강을 지키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안전성 검토 무농약 인증

2016년 산림청장상 수상

담양 대덕 호두농장 대표 진 철 호

061-382-4728 / 010-3604-6712

전남 담양군 대덕면 남대덕로 424-2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전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체 010-3600-9955

NAVER 주신ID) 대신프리모

대우은행 500m

구대교

大山프리모가발